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 better PEOPLE 12 2003

# better WORLD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 3 머릿글  
박원홍 한나라당 국회의원
- 4 주간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12월 프로그램
- 6 화제의 강연  
정중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 10 자랑스런 회원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14 나의 경영이야기  
우창욱 동명인쇄(주) 사장
- 16 지자체 특강  
이희범 서울산업대 총장
- 19 화제의 지방자치단체  
김한겸 경남 거제시 시장
- 22 회원&연구원소식
- 26 원로회원을 찾아서  
김동철 유신산업(주) 고문
- 27 발행인 편지
- 28 세상을 보는 눈  
허영호 탐험가
- 30 이규태 칼럼

Better People, Better World 통권 제 34호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월간 비매물  
 발행일 : 2003년 12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전화 : 2203-3500(대)  
 팩스 : 2203-1974  
 홈페이지 : www.khdi.or.kr  
 주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8-8  
 편집디자인 :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 (주)동명인쇄 462-6323

### 표지인물

###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창현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후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여 년간 정부개혁의 자문 경험을 살려 인사개혁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고 있는 인물이다.

오랜 미국생활에서 배어나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학계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들으며,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열쇠는 인사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는 조위원장의 만나 정부 인사정책의 방향과 행정학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관련기사 10~13면>

2003 NEW PRODUCT

ESPERA

에스페라 시리즈

## 이 시대의 뉴 리더를 위해...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또 다른 성공의 기회를 발견하는 이 시대의 뉴 리더를 위해 퍼시스가 새로이 내놓는 중역용 가구, 에스페라 시리즈-

미세한 버티컬 라인의 밝은 마호가니 무늬목과 슬레이트 우드의 중후한 베이스 컬러의 조화, 곡선, 직선, 사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감각적인 상관 디자인이 돋보이는 에스페라 시리즈가 귀하를 성공의 장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FURSYS**  
(주) 퍼시스  
[www.fursys.com](http://www.fursys.com)

# 送舊迎新의 期待

박원홍 한나라당 국회의원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엇그제 새 각오로 시작한 한 해가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사다 난했던 묵은해를 버리고 싶어한다. 잊고 싶어한다. 그리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려 한다. 제야의 타종 소리를 들으며 어느새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두고 또 다짐을 한다. 새해에 기대를 건다.

연말연시에 우리들은 흔히 19세기 영국의 桂冠詩人 알프레드 테니슨의 노래를 듣거나 따라 부른다. "저 하늘까지 종소리 크게 울려라. 낡은 것을 울려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으라. 진실과 정의의 사랑을 맞으라!" 옛 것을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자는 노래는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送舊迎新이다. 울려 보낼 묵은 것, '送舊'할 것은 어떤 것이고 울려 들이고 맞아들일 새 것, 즉 '迎新'할 것은 어떤 것인가?

테니슨은 시기와 분쟁, 옛 생각, 질병, 고통, 탐욕, 전쟁 등은 묵은 것으로서 울려 보내야 할 것들, 즉 송구할 것이며 순결한 삶, 새 마음, 기쁨과 사랑, 참 자유, 평화 등은 맞아들일 새 것, 즉 영신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사회는 바뀌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 개혁해야 할 것들이 준비하다. 그 중에서도 정치권은 개혁 대상순위 영순위다. 정치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머릿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리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있음에 국민들은 분개한다. 거꾸로 가는 정치 현상을 보며 국민들은 한탄을 한다.

요즘처럼 정치권이 어지러운 때에 그 중심 현장에 있으니 당연한 질문이 쏟아진다. '왜 이 지경인가? 바꿀 수는 없나? 진실은 무엇인가? 언제 우리는 바른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책과 요구에서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까지 다양하다. 크게 반성하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고심해 본다.

우리 정치에서 떠나 보내야 할 것들이 많다. 먼저 돈 정치의 魔力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탐욕에서 자유로, 분쟁에서 평화로 변화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선 비자금 지원으로 촉발된 정치권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크다. 이제 케케묵어 낡은 구습정치를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단장해야 한다. 政爭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필자나 국민들이 보고 느끼며 바라는 새로움은 다르지 않다.

고대 희랍의 플라톤이 주창한 哲人政治는 요원하더라도, 철인정치의 요체인 正義 (Justice)가 샘솟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 중에는, 좋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 4월에는 17대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이 변화에 앞장서는 해, 한국정치의 미래가 보이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人間

# 12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 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미관계와 경제협력 방안

1329회 12월 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한미관계에서 3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문제, 이라크 추가파병,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입장조율이 그 동안 여러 고비를 넘기고 최근 큰 가닥을 잡았다는 평가가 외교부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고심을 거듭해온 이라크 파병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파병거부시 우려되는 대미갈등과 북핵문제 증폭, 주한미군 재배치, 통상압력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간접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한미 관계에서 최근 볼 수 있었던 일련의 질적인 변화들을 불안한 눈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국제정세가 변하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만 고착돼 있는 것은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에서 뿐 아니라 한미관계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번 이라크 파병문제 등에서 한미간에 노출된 일련의 갈등이 한미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보잉코리아 사장이자 한미 양국의 투자 및 무역의 증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는 주한미상공회의소의 윌리엄 오벌린 회장을 초빙하여 바람직한 한미관계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 美 퍼듀대 졸업(1965)
- ▲ 美 공군 중령 예편, 보잉 헬기사업부 극동지역 판매 매니저(1985)
- ▲ 주한미상공회의소 부회장(1992-95)
- ▲ 보잉 극동 방위시스템 판매이사(1997)
- ▲ 보잉코리아 사장(2000-현)
- ▲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2003-현)
- ▲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전경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 미군 북무지원단(USO) 이사, 한국방문의 해 명예대사, 군 전역자 협회 회원(현)



## 정부의 참여정책 세대로 되고 있는가

1330회 12월 1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박주현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 비서관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 동안 과연 국민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제일 국민과 가까우려라 생각했던 노무현 정부는 민노총, 시민단체 등과 정책을 달리하면서 갈등의 국면을 겪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새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참여수석실은 국민참여를 위해 그 동안 따로 놀던 민원과 제도의 개선된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5년 동안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박주현 수석은 청와대 비서 가운데 가장 젊고,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발탁 당시 파격인사라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몇 번 정치권에서 손짓을 받기도 했던 본인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성단체장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참여수석실이 수석실 중 가장 안정됐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 박수를 받기도 했다.

요즘은 내각의 인사에서는 국민참여 방식이 가미된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으며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책임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평론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박주현 수석을 초청해 새정부의 국민참여정책에 대해서 들어본다.

- ▲ 서울대 사법대 졸업(1985)
- ▲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1990)
-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1985)
- ▲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실련 삼일집행위원, 고용보협 심사위원, 서울시 규제개혁실무위원(1998)
- ▲ 법무법인 명인 변호사(2001)
-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3중재부 위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 자문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2002)

## 삼성, GE에서 체험한 Global Business와 CEO교체 후 GE코리아의 변화

1331회 12월 1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이채욱 GE코리아 사장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이었다. 한국형으로 불리는 경영방식이 당시의 경제난국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다행히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문어발식 경영과 유사한 것으로 '사업다각화'라는 것이 있는데 본업을 중심으로 기술, 자원, 판매 등의 강점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실천한 기업으로 세계 경제계에서는 GE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1875년에 설립된 GE가 문어발식 경영의 폐해를 극복하고 항공기엔진, 가전제품, 의료기기, 전력시스템, 캐피탈, 항공시스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Global Business의 선두주자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배우고 도전하는 문화(Learning Culture)가 있기 때문이었다.

최고로부터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경영에 반영되도록 제도화(Best Practice Sharing)하는 것이다. 이러한 GE의 글로벌 경영에 맞춰 GE코리아 또한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CEO 교체 후 'One GE'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시장의 잠재력을 본사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본사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인재사관학교'로 불리는 삼성에서 현장경험을 쌓으며 배운 경영노하우를 GE코리아에서 마음껏 펼치고 있는 이채욱 GE코리아 사장을 초빙하여 이사가장이 삼성과 GE에서 배운 글로벌경영에 대해 들어보고 CEO교체 후 GE코리아에 불고있는 변화의 바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 영남대 법학과 졸업(1971)
- ▲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국제무역과정(1975)
- ▲ 고려대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1993)
- ▲ Wharton Business School 단기과정(2001)
- ▲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2002)
- ▲ 삼성물산 입사(1972)
- ▲ 삼성물산 해외지사장(1981-85)
- ▲ 삼성물산 해외사업본부장(1985-89)
- ▲ 삼성GE 의료기기 대표이사(1989-96)
- ▲ GE(메디칼 부문)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장(1996-98)
- ▲ GE(메디칼, 초음파부문) 아시아 총괄 사장(1998-2002)
- ▲ 한국능률협회 부회장, 전경련 CEO교육 위원회 위원, 전경련 국제경영원 Young Leader Supporters 자문위원(2003-현)

## 200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회고 그리고 2004년 전망

1332회 12월 2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올 한해 세계경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여파와 아시아의 사스 파동, 유로권 국가들의 저성장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며 국내 경기 또한 해외경기의 영향과 함께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을 드러내며 비판적인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3/4분기에 접어들면서 오랜 침체를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은 내년도에 GDP와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좋은 한해가 될 것이라는 '호황도래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급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경제 역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정부의 발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한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면 세계경제 회복추세에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 국내의 위기상황은 대외적 요인보다 대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의 예측이 엇갈린다는 것은 향후 국내경제 전망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경제계에 큰 공헌을 해오며 제 32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초빙하여 올 한해 동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되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조명해 보기로 한다.

- ▲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1964)
- ▲ 美 UCLA 경영학 석사(1966)
- ▲ 美 UCLA 경영학 박사(1969)
- ▲ 美 뉴욕대 경제학 교수(1969-73)
- ▲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1982-83)
- ▲ 산업연구원 원장(1983)
-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1983-87)
- ▲ 제 32대 재무부 장관(1987-88)
- ▲ 국제통화기금 특별고문(1989-98)
- ▲ ASEM 비전그룹(AEVG) 의장(1998-2000)
-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 대사(2000-02)
- ▲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의 위원(2003-현)
- 〈상훈〉 국민훈장 모란장, 별기예왕관 대관장, 청조근정훈장 외
- 〈저서〉 세계속의 한국경제(1993) 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2001) 외

# 고속철도시대를 맞으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정종환 이사장

**고**속철도를 착공한지 12년이 되어 간다. 그 동안 왜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구태여 300km/h의 속도로 빨리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주종의 문제였다. 나는 20년 전에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서울~부산간에 인구의 71%, GDP의 75%가 집중되어 교통난, 물류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시설의 확충이 시급했다. 그때 대표적으로 11개 대안을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확충, 기존의 복선전철 건설, 고속철도 건설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2년 동안 검토한 결과 건설비는 고속철도가 고속도로나 복선전철보다 105배 많이 들지만 수송능력은 2배, 운행시간은 2~3배 단축할 수 있어 고속철도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비행기와 맞먹는 속도 경쟁력

흔히들 고속철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빨리 간다는 사실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간다는 것은 바로 수송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속도가 배로 늘어나면 수송능력이 배로 늘어난다. 그런 측면에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경부축의 수송능력을 늘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면서 신선은 완전히 여객전용으로 활용하고, 기존선은 화물중심으로 운용해 부산항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철도를 중심으로 수송해나간다면 여객수송문제도 해결하고 물류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건설되었다.

경부고속철도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까지 가는 노선이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동시에 건설해서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불행스럽게도 IMF사태를 맞으면서 도중에 국가재정능력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다보니 사업기간도 지연되고 경부고속철도의 효과도 반감되는 상태가 된 것이 사실이다.

1단계는 내년 4월에 개통을 한다. 서울~대구까지는 신선을 건설하고 대구~부산은 기존선을 전철화해서 우선 개통한다. 건설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구까지 건설해놓고 놀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놀리지 말고 우선 개통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대구 이남의 구간을 건설하자는 전략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 소요된다. 2단계 사업은 대구~경주~부산까지 신선을 건설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구간을 신선으로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18조 4358억원이 들고 1단계 개통에 12조 7,377억원이 들어간다. 고속철도는 속도가 300km/h이다. 실험해보니 330km/h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최고 속도는 300km/h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구까지 달리는데 거의 50%의 구간은 300km/h로 주파하는 것이다. 평균속도는 213km/h정도다.

내년 4월이면 경부선만 개통되는 것이 아니라 호남선도 동시에 개통이 된다. 나는 철도청장 시절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호남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나 민심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다. 대전까지는 이미 신선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9,000억 원만 돈을 더 들이면 대전에서 광주~목포까지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구는 장거리 수송의 70%정도를 철도가 담당하는데 광주는 10%도 안 된다. 호남선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호남선의 철도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만나질 생활권 가능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호남선은 복선화를 하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러나 호남선을 전철화하는 데는 4년이 걸렸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호남선 전철화가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내년 4월이면 서울~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광주~목포까지도 기존선을 통해서 전철화가 된다. 특히 호남선 익산에서 광주~목포구간은 대한민국에서 선로상태가 가장 좋다. 이것을 전철화하면 시속 180~200km까지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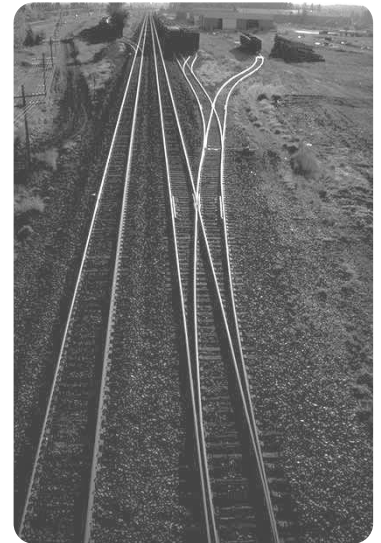
서울~부산은 현재 4시간 10분이 걸리는데 2시간 40분으로 1시간 30분이 단축되고 서울~목포구간은 4시간 40분에서 2시간 58분으로 1시간 40분이 단축된다. 이것은 전국이 3시간 이내 권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즉, 속도 면에서 항공기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말이다. 공항까지 가는 시간과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히려 1단계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고속철도가 비행기보다 실질적으로 더 빠르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이 대한민국 교통사에서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하루 생활권이라고 말하지만 만나질 생활권으로 변할 것이다. 주거패턴도 변할 것이고 관광이나 여가도 변할 것이다. 천안이나 대전은 서울에서 50분도 걸리지 않는다. 미아리에서 서울시내로 출근하는 시간보다 천안에서 서울역에 들어오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른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는 대단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 고속철도가 서는 역에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수도권을 비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문화나 여러 가지 고급활동들은 그것이 발달된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오케스트라를 감상하러 서울로 고속철도를 타고 쉽게 오고갈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변화가 늘어난다. 특히 철도의 수송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현재는 경부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도 30%정도는 소화를 못시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도용량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태운다는 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열차 한 대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이 935명이다. 어떻게 꽉꽉 채워서 달리느냐가 이제는 고민거리가 되었다. 수송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철도가 각광받는 철도의 르네상스시대가 온다.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엄청난 우리 경제나 사회, 문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고속철도의 1단계 사업은 2003년 9월말 현재 97% 공정 진척으로 정상 추진중이며, 연말까지 98%는 무난히 달성할 계획이다. 노반, 궤도, 전력설비 등 모든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다. 금년 5월부터 광명~천안구간에 고속차량을 투입하여 시설물 성능 시험을 시행중에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시승을 하고 있지만 황금 평택평야를 300km/h속도로 달리는 맛은 정말 짜릿하다. 10월부터는 대전~대구구간으로 시험운행을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연내에 시험이 거의 끝난다. 역사는 지금 새로 두 개를 개설하고, 개량하는 것이 3개 정도다. 광명·천안아산 역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여객접객 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점검 등은 연말까지 완료된다. 그리고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고속철도에 걸맞게 개선하는 작업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다. 고속도로의 차량기지는 고속철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두 개의 차량기지를 건설하는데 고양차량기지는 이미 작년 11월에 완공이 되었다. 42만평 정도의 규모로 KTX차량 시험 및 정비에 활용중이다. 부산차량기지는 착공이 늦어져서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실질적인 공사가 다 끝나고 내년 3월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



## 불이 나도 타지 않는 안전한 시스템

고속철도 차량제작현황을 살펴보자. 이번에 도입하는 차량은 총 46편성이다. 한번에 갈 때 움직이는 한 세트를 1편성이라고 한다. 이 차량은 1편성(1개 열차에 20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객은 935명이 탑승할 수 있고, 길이는 388m다. 이런 열차를 46편성을 제작하는데 프랑스에서 제작해온 것이 12편,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34편이다. 현재 42편성이 반입이 되었고, 나머지는 11월말이면 다 들어오게 된다. 물론 프랑스의 기술이전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제작한 차량도 프랑스에서 제작한 차량에 비해 손색없이 좋은 성능으로 시험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차량을 일찍 들여와서 고물열차를 만드느냐?"는 비난이 많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 승용차는 공장에서 시험 완료 후 수요자에게 바로 공급이 되나 고속철도 차량은 제작공장에서 시험이 불가능하다.

제작이 완료된 차량은 공장 출하 후 국내환경 조건에 맞는 조정시험, 설계성능을 검증하는 설계입증시험 등 6단계의 시험을 거친다. 경부고속철도에 반입되는 총46편성의 시험기간은 약 4년이 소요된다. 절대 차량을 미리 도입했다고 해서 고물열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통되었을 때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운전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절차를 위해서는 차량을 미리 제작해서 시험을 완전히 끝내줘야 한다. 그리고 이 차량은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떼제베가 아니라 한국에 맞게 조정된 개량된 떼제베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 시운전이 필수적이다.

고속철도는 고속을 내야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산이 많은 지역은 평지로 못 간다. 그래서 거의 70% 이상이 다리나 터널이며 교량의 강도가 빌딩 및 일반 교량의 배가 된다. 고속주행중 돌발적 선로 또는 차량이상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도 구축했다. 고속철도가 달리다가 차량이라도 들어오고 돌이라도 철로 면에 떨어지면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격리된 철도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는 감지장치를 전부 만들었다.

고속철도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속도 및 운행기록 장치가 운전실에 설치되어 있다. 운행되는 모든 상황이 전부 자동으로 컴퓨터에 기록되고 자동으로 차량기지로 넘어간다. 옛날에는 차량유지보수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는 거의 컴퓨터에 의해 모든 것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자기 진단능력이 있어 안전하다. 한마디로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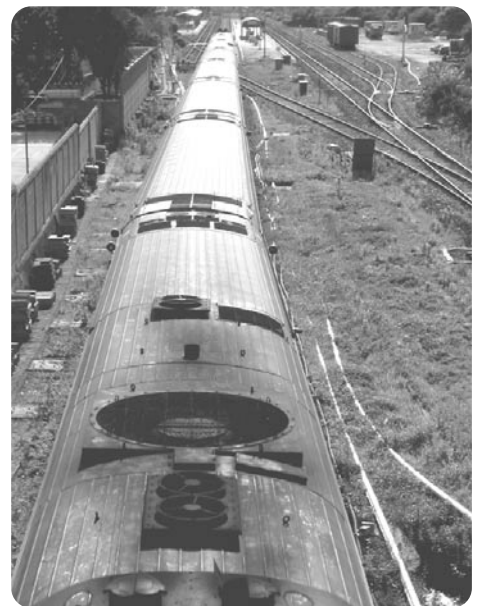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화재의 심각성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다. 고속철도는 커튼, 의자, 밑바닥 등 완전히 내전재를 사용했다. 그리고 기차들 입회 하에 직접 불을 붙여봤지만 불꽃도 일지 않았다. 신나를 뿌렸는데 신나만 타고나서 나머지 바닥은 전혀 타지 않았다. 고속철도 차량은 불이 나도 타지 않는 난연성 자재로 만들어졌다.

## 철도구조개혁을 통해 철도경쟁력을 회복해야

고속철도시대를 여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구조개혁의 조속한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철도체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새로운 고속철도시대, 철도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철도가 도입된 이래 약 100년간 국유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철도였다. 그런데 옛날에는 철도가 독점적인 지위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항공기, 자가용, 트럭, 버스와 경쟁해야 한다.

현재의 경직된 경영체제로는 타 교통수단과의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일단 항공기와 맞먹는 속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속도경쟁에서는 이겼지만 항공기와 맞먹는 첨단의 고속철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현 체제로서는 힘들다. 때문에 철도구조개혁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영업은 연간 6~7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도 철도구조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철도 사양화를 경험했다. 자동차시대가 오게되면 철도가 사양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역시 삶의 질과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도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철도로 해결해야 하며 철도구조개혁을 이워서 수송량을 증가시키고 철도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 수를 감소해 인건비 비중을 감소시켜야 한다. 지금 철도청은 75%가 인건비다.





일본 국철은 인건비가 30%밖에 안 된다. 이런 철도는 경쟁력이 없다. 국가가 철도를 경영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인도, 러시아, 북한, 스리랑카, 한국뿐이다. 러시아는 구조개혁을 해서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빨리 해야 한다.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가진 나라라고 하면서 100년 전의 철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우리 나라 교통정책은 60년대, 70년대는 철도가 대중을 이뤘지만 8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된 자가용 시대에 맞추어 도로분야에 중점 투자되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아스팔트로 덮어도 교통체증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기본적인 도로를 필요하지만 도로를 가지고 교통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해결 불가능한 발상이다. 지금 철도투자가 감소되어 부담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철도 손님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철도투자의 감소는 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철도이용을 기피하게 된다. 철도의 수송분담율은 계속감소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등 삶의 질을 중시한다. 미래사회에 있어서 교통의 접근방법은 도로로는 안 된다. 독일·영국·프랑스 등은 도로의 약 2배를 철도에 투자하고 있다. 철도위주로 계속해서 교통정책을 끌어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이미 선진국이 경험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 대륙철도와 연결해 꿈의 실크로드 실현이 목표

약 100년간 익숙해진 공무원 체제로는 고속철도시대에 충분히 적응할 수 없다. 사실 나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철도를 경영하면서 고속철도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착안해서 고객만족경영이라는 화두를 붙여 경영마인드를 바꾸고 몸부림을 쳤지만 사실은 아직도 멀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속도 면에서, 인프라 면에서는 일단 경쟁력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프라, 속도만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 마케팅 등 여러 면에서 얼마나 철도가 제대로 따라줄 수 있느냐가 과제다. 만약에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을 때 국민들이 타보고 빠르지만 하지 별거 아니라고 하면 큰일이다. "역시 타보니가 고속철도 물건이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감성적으로 좋고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국민들이 고속철도에 눈을 돌리고 고속철도를 타게 되고, 돈을 벌고, 그것으로 빚도 갚고 계속해서 고속철도를 건설해나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통일이 되어 북한철도와 연결해서 대륙철도로 뻗어나가는 것은 꿈만은 아니다.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전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대륙철도와 연결해 꿈의 실크로드를 실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물건이 몰려드는 곳이 된다. 배로 가는 것보다 철도로 가는 것이 빠르고 경제적이라면 물건이 우리 나라로 오게 되고 우리 철도가 대륙철도로 뻗어나가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구조개혁도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있고,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구조개혁을 마무리되면 철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가고 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대륙철도로 뻗어나갈 때 우리 철도는 희망이 있다. 그래야 우리 국가도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관광쪽으로 살리면서 물류쪽에서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철도가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人間**



## 효율적 정부인사시스템을 위한 인사개혁의 중심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위원장

**참** 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는 가운데 '더 효율적인 정부',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인사개혁에 대한 시도는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출범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해 행정자치부와 이원화되던 업무를 위원회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체계적·종합적인 인사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여기에 정부인사시스템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해나가고 있는 조창현 위원장은 1980년대 초부터 정부개혁에 자문을 해온 경험을 살려 개혁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조위원장은 오랜 미국생활에서 배어나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치밀함과 적극성으로 우리나라 행정학계에 지방자치 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행정학자이자 한양대에서 교수생활을 하며 지방자치대학원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인물이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핵심열쇠는 인사개혁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조위원장을 만나 정부 인사정책의 방향과 행정학자로서 살아온 그 동안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인사제도의 개혁을 위해 출범한 중앙인사위원회에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 6개월 여가 지나셨는데요. 우선 소감과 각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2년 5월24일 중앙인사위원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정부인사시스템을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혁하기 위해 매우 바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인지 모르나 '참여정부 국정 우수분야'에 인사개혁이 제일 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아직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사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죠.

정부의 인사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사회에 투명·공정하고 개방·경쟁·성과중심의 선진 인사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는데요.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업무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주시죠.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성을 가진 합의회 행정기관으로 1999년 5월 2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인원은 105명이 있어요.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승진시 그 적격성을 심사·의결하고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인사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심의하며 행정기관 인사운영의 적정여부를 감사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 인사업무를 지도·지원하고 있죠.

이와 아울러 개방형직위제도 운영,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시행, 국가인재 발굴·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와 공무원 처우개선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인사심사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향후 위원회의 기능 재정립과 권한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인사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고서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인사정책과 집행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인사개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웠어요. 또한 각 부처가 두 곳의 인사책임자를 중복 상대하게 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불편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기능이 일원화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체계적·종합적인 인사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율화·분권화 추세에 맞추어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각 부처 장관에 대폭 위임되며, 중앙인사위원회는 3급 이상의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와 각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전문상담자(consultant) 역할 및 실적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이 재정립될 것입니다.

## 여러 인사개혁정책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핵심열쇠는 인사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있으며, 성공적인 인사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철학, 둘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마스터플랜, 셋째, 인사개혁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의 인사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은 그 동안 고위공직자와의 대화 등 여러 자리에서 충분히 확인되었어요. 인사개혁의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전략 또한 참여정부 출범직후 마련된 인사개혁 Roadmap을 통해 이미 제시되었으며 2원화 되어 있었던 중앙인사관장기관도 조만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됨으로써 향후 인사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평소 공직사회의 인사제도에 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인사제도가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정부 인사기능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단순 집행기능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사람이 국가와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인사제도도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인사제도가 인사권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 부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우수인재의 선발·육성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지요. 인사제도는 기본원칙과 최소한의 요건, 절차만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의 특성과 목표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급제도 하에서 승진, 비리방지 목적으로 빈번한 순환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전문성 축적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보직경로를 설정하는 경력개발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문화와 의식으로 인해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정착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울 초 공무원 공채를 축소하고 외부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현재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공채제도는 성별·학력 등의 제한 없이 공직번호를 개방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이 채용 중심의 공채방식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요.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채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개방형인사제도와 과학기술·전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고급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턴기간을 거쳐 능력이 검증된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인턴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중이며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재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의 채용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그 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은 우리나라 행정학계에 지방자치 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행정학자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저서가 많은데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위원장님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의 국가 경영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현장에 참여했던 것도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 공무원들의 경우를 보면 과거 임명제 시절 공무원들이 임명에서 은퇴까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국민들이 국가자원분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 주민들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중앙의존적으로 살아왔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한계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어요.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도 서울 못지 않은 문화와 동시에 산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수도나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나 모든 조건이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왜 도시에 나가서 살지 않느냐고 물으면 굳이 중앙으로 나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문화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수도와 똑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폐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기적 안목의 역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가야합니다. 곧 지방자치의 성공이 지역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은 장기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양대에서도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행정학계의 견인차 역할을 하셨는데 그 당시 보람있었던 일 좀 말씀해주시죠.

저는 1960년대에 단돈 300달러를 들고 유학길에 올라 그곳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후 그곳에서 16년 동안 교수로 일하면서 무려 11년간은 수많은 미국 교수들을 임용하고 해고하는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학과장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동양인도 미국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행정을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미국 교수를 해고하면서도 단 한 건의 소송도 없었지요.

당시 미국정부의 행정을 가르쳤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지금 각급 미국정부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기도 하죠. 그 때에 미국의 행정실무를 보고 배우고 참여하는 기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행정학자로서 정부의 지문을 하면서 조금도 생소하지 않고 몸에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의 교수생활은 제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2000년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을 시작으로 공직에 들어서게 된 위원장님의 평소 인생철학은 어떤 것 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과거를 회고하거나 그리워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하는 비전만 가지고 살아왔지요. 그래서 유학도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나이는 좀 들었지만 10년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꿈을 먹고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과 꿈이 없는 인생은 건조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위원장님은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저희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학위만 주지 않을 뿐 대학원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훌륭한 업적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구원의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간 경제가 좋았을 뿐이지 과거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경제환경에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소득 1만 달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침략 속에서도 민족성을 지켜왔습니다. 어려울수록 기회라는 인식으로 노력하고 미래를 계획하면 반드시 희망찬 한국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선구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 우先達인가 사업가인가

동명인쇄(주) 우창욱 사장

**저** 음과 할 수 있다는 신념만으로 직업을 선택한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성공하였느냐고 묻는다면 만족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려놓은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아직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날들이 남아있어 좋은 일과 보람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며 내일을 계획해봅니다.

성공이라는 말조차 듣기 조심스러운 시점에서 이러한 글을 쓰는데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은 날들을 사는 동안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인생을 잠시나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글을 올립니다.

## 인쇄업은 문화사업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나는 평소 잘 알지도 못하던 인쇄를 어깨너머로 배우고 우연하게 인쇄업과 인연을 맺어 아주 작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명함에 대표라고 하기에다 쑥스러운 20대 청년시절이었다.

서울에서 대학은 다녔으나 지방출신으로 사업자금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 보았다. 인쇄는 문화의 근본이며 지식산업의 바탕으로서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를 세계최초로 발명한 인쇄 종주국이다. 우리 선조들은 751년에 뛰어난 장인 정신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만들었으며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1377년에 금속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했음은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위대한 자랑스러운 인쇄인으로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 싶다.

그러나 인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충분히 변명할 수 있지만 회사운영과 성장의 어려움은 장벽이 두터운 현실이다. 인쇄시설의 현대화된 장치는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며 잘못되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투자나 성실만으로는 회사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욕심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사업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오면서 작은 인쇄시스템 설비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1993년 대전 엑스포 등의 행사에 인쇄물 공급업체로 일조하게 되었고 이는 지금도 사업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 사업하는 先達

사업에 대한 애착과 노력의 결실이 하나씩 무르익으면서 주말이면 소년시절 꿈을 꾸며 몸과 마음을 키웠던 고향으로 달려가는 작은 버릇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나의 고향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으로 옛날에는 깊은 산촌이었으나 지금은 물 좋고 경치 좋은 청정지역으로 인심 후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하였다. 서울에서 2시간여가 소요되는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는 주말을 그리워지게 하는 정겨운 촌집 한 채가 아직도 남아 있다. 뒤로는 일곱봉의 칠보산이 송림과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 앞으로는 극심한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아주 깨끗한 계곡물이 바위틈을 소리내어 흐르고 있다. 또 밤이면 하늘인지 별밭인지 모르게 가득찬 밤하늘의 찬란함이 자연과 아주 잘 어우러진다.

시골길을 지나가노라면 통학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을 집까지 태워주며 나름대로 청소년을 선도하고 대화하며 식사도 하고 가정까지 방문하여 인연을 맺고, 친분이 쌓이면 부모와도 못하는 고민을 상의해오곤 한다. 지역 초·중·고등학교에는 효자, 효녀상을 주고 있고 매년 청소년 강좌시간에 연사로 초대되는 행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 나는 평소 각종 행사에서 받는 기념품과 선물, 그리고 준비된 학용품을 정성껏 모아 전달하고 독서로 얻은 지식과 생활에서 느낀 것들을 정리하여 전한다.

나는 시골을 다니면서 식사 때가 되면 식당을 찾지 않고 얻어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논밭에 농부들이 식사하는 곳이 보이면 지체없이 달려가 넉살 좋게 얻어먹고, 산 밑에 자리한 촌가의 저녁연기 전경이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아 마을 국도를 혼자 달리다가 동네 어귀에 차를 숨겨두고 허름한 집의 열린 문으로 거침없이 침입하여 밥 한술을 구걸한다. 그러나 나는 단지 밥을 얻어먹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소박한 농촌인심을 얻어먹으려는 것이고 거기서 얻는 즐거움 또한 나만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리에서나 논밭에서나 촌가에서 밥을 얻어먹고 나면 잊지 않는 버릇이 있다. 적은 돈 몇만 원을 그 집 자녀들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짐을 받는다. 반드시 그 돈으로 책 한 권을 사고, 남은 것은 다른 곳에 써도 좋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런 나의 자태가 보기 좋게 느껴서인지 집주인은 배추, 무, 마늘 등을 아까운 줄 모르고 안겨준다. 그래서 시골을 다녀오는 차의 트렁크에는 인연과 정과 마음이 담긴 농산물로 가득하다.

수년간 작게 베풀고 큰 보람을 즐기는 동안 지역 어느 곳에서든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이제는 부담없이 얻어먹는 습관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다보니 누군가가 나를 우先達이라고 부르며 입소문을 내었는데 과히 듣기 싫지가 않다.

사업초기에 나는 셋방살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문배달을 하면서도 향학열을 지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부도 시키고 후에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그들이 지금은 성장하여 사장으로, 직장인으로, 장교로 일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날들을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묵묵히 남편의 뜻에 따라준 아내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숲 속 나의 촌집 작은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가끔 나무 밑의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내 생활을 돌이켜도 보고 나와 인연을 맺은 고마운 분들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나와 또 하나의 나와 대화하곤 한다. 그리고는 흘러간 노래를 하모니카로 연주하며 주위풍경을 달래주는 등 주말의 이런 보람된 시간들은 내 인생의 가치와 행운으로 작은 행복을 맛보게 한다.

## 先達인생은 경영의 연장선

최근 국내경기는 IMF를 슬기롭게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IMF 때보다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쇄업계 사정은 더 절실한 현실로 사회경제가 불안해지면 손쉽게 위축당하는 업종으로 자금난, 인력난, 물량난 등의 어려움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열성의 사훈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능력있는 직원들과 더불어 몸과 마음이 기운차 있는 한 지금의 어려움은 결코 회사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또한 내 나름대로 작은 봉사의 보람이라고 믿고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주말의 시연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는 마음고생을 위로해 주는 것을 시인하기에 나의 先達인생은 불가분의 아름다운 관계로 의미 짓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先達이라 부르는 것을 내 삶의 소박한 색깔로 받아들이고 경영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훌륭하게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人間

# 지역주의와 동북아 중심 경제

서울산업대학교 이희범 총장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심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동북아 중심경제의 건설이다. 물론 과학기술 중심사회 건설과 2만 불 시대의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의 창출, 지역균형의 발전, 정부의 혁신과 규제개혁 등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북아 중심경제의 건설을 글로벌 차원에서 왜 중심경제의 건설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다. 나는 산업자문부 시절 중미대사관에서 상무관을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하면서 그 때 당시 슈퍼301조 통상협상을 담당했었고, 1994년부터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상무관으로서 EU통합과정을 지켜봤다. 유럽연합 15개 나라는 1995년부터 단일 경제권으로 출범을 했고, 2002년 1월부터는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있고, 내년 5월부터는 동부 10개 나라가 포함되어 유럽 25개 나라가 단일국가형태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비추어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동북아 중심경제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 세계무역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2차 대전 이후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석탄과 철강이라는 공통분모를 이용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화해시키자는 차원에서 1950년대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발족이 된다. 이 석탄철강공동체가 발족이 되면서 프랑스와 독일간의 전쟁은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석탄철강공동체가 설립이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1943년 중반,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우드라는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연합군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전후 경제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합의하게 된다. 첫째는 전후 환율안정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을 창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역시 세계경제부흥을 위해서 창설이 된다. 무역분야에서는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국제 무역 기구)라는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반대를 함으로써 1948년 1월에는 23개의 나라가 서명을 함으로써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이 탄생한다.

GATT는 전후 무역의 자유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무역자유화의 협상을 주도했다. GATT가 주도한 무역자유화는 195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협상을 벌여 왔고, 8차례의 대규모 협상이 있었는데 그 8번째 협상이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개최가 되면서 1994년 4월 15일 마라캐쉬에서 협정이 서명되기까지 약 8년간에 걸친 지루한 전쟁을 거치면서 결국 우리는 농산물을 개방했다.

우리 농산물은 현재 쌀 이외에 모두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로 보호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구마는 관세가 800%이고, 참깨는 600%, 양파는 135%, 고추는 285%, 마늘은 380%이다. 지금 우리 농산물은 125개의 품목을 100%가 넘는 관세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가 되면서 미국은 도하개발아젠다에서 관세를 25%로 낮추자고 한다. 만약 25%로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 고구마의 경우는 중국산 고구마kg 당 만원짜리가 김포공항에 들어오면 800%의 관세 때문에 9만원이 된다. 참깨는 만원짜리 중국산 참깨가 우리나라의 국경영역으로 들어오면 7만원이 된다.



이렇게 관세로 우리 농업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25%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원은 12,500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농업경쟁력은 엄청난 위기를 맞는다. 이러한 농산물 협상이 지금 도하개발아젠다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쌀 문제만 해도 이번 멕시코에서 열린 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미국과 EU가 한편이 되어서 쌀개방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새로이 G24라는 농산물 수출개도국이 모여서 쌀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 인도가 모여서 쌀과 농산물을 개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농산물수출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등 17개국은 케언스 그룹이라고 해서 쌀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농산물 수출을 서서히 하자, 개방을 서서히 하자고 하는 나라는 G10그룹이라고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모여서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농산물 개방문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앞으로 겪어야 할 시련이다.

## 도하 지역주의의 새로운 탄생

현재 GATT 24조에 의한 관세동맹에 따라서 지역주의가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형태 중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특혜관세협정이다. 특혜관세협정은 특별 국가에 대해서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홍차에 대해서는 무세를 지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영국에 홍차를 수출하면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홍콩으로부터 들어가는 원자재, 공산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GATT 1조 1항 모든 국가에 동일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의 위반이다. 이번 멕시코 DDA협상이 깨진 것도 외형적으로는 싱가포르 아젠다가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지만 EU 15개 나라는 아프리카 46개 나라, 카리브 연안의 15개 나라,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 77개의 국가와 ACP협정이라는 것을 특혜무역 협정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무역협정은 과거의 식민지이다. 유럽국가들은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와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해서 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원재료는 관세를 싸게해서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은 관세를 비싸게 한다.

두 번째로 가장 불편적인 지역통합형태는 자유무역지대이다.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관세를 무세로 체결하는 것이다. 협정체결 밖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간에는 관세가 없다. 우리나라의 TV가 미국에 들어갈 때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멕시코의 TV가 미국에 들어갈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미국에 들어갈 때 2.5%의 관세를 낸다. 그러나 캐나다산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는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은 미국에 들어갈 때 그만큼 불리해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멕시코에 짓는 것은 멕시코산이 되면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에 관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관세가 멕시코는 8%, 미국은 2.5%, 캐나다는 5%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게 된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면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품이 자유이동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서 미국에서 다시 멕시코로 가져가면 관세를 통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멕시코의 보호정책이 무너진다.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는 한국산인가 미국산인가를 따지는 통관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의 초소에는 수많은 트럭행렬이 세관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산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필요하다. 지금도 수출을 할 때는 상공회의소를 통한 원산지규정을 받는데 복잡한 행정서류가 필요하다.



이희범 서울산업대 총장이 지난 10월 17일 장성아카데미에 출강해 지역주의와 동북아 중심경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한중일 3개국의 무역관계 및 동북아 경제협력

일본과 우리나라도 민족적, 역사적으로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다. 일본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선 당장 일본 자동차가 들어오게 된다. 다만 농산물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뒤덮게 된다.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면 우리 농산물 시장은 갈 곳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간에는 여러가지 경제협력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신문에는 2005년까지 한일간 FTA를 하자고 해서 곧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해진다.

머지 않아 중국과도 경제협력방안, 구체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중일 간에는 한국이 중심 축이 되어서 한일간의 협력, 한중간의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의 국가들은 인구 면에서 세계의 23.4%, GDP에서 15.5%를 차지하지만 세계 물동량 중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8%정도이고, 2006년이 되면 30%가 넘게되어 세계 물동량의 1/3정도가 동북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한중일 3개국은 무역 규모 면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1965년도 국교정상화를 하고 난 다음 작년 말까지 우리 쪽의 무역적자가 1,980억 불 정도 된다. 올해 무역적자는 150억 불 이상 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2000억 불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1995년 1만 불 고지를 처음달성하고 1997년 OECD에 가입했다.

OECD에 가입하고 그 해 230억 불의 무역적자를 냈다. 그리고 무역규모는 3300억 불 정도가 되는데, 무역규모의 1/4정도는 금고에 보유하고 있어야 적정 외환 보유고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900억 불 정도는 금고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1997년 12월 7일에 39억 불밖에 없어서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다. 우리는 매년 150억 불 가까이 일본으로부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매년 100억 불 가까이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역에는 60억 불 정도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지만, 홍콩을 경유하는 것을 포함하면 중국의 통계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매년 100억 불이 넘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250억 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결국 한중일 3국은 물고 물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우리 경제의 대내적 흐름 및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해나가는 것이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의 2/3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가운데도 1만 불 소득시대에 나타난 여러가지 병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가시간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의 기호에 따라서 주5일제 근무가 내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공기업, 천명이 넘는 기업장부터 시작이 된다. 2011년에는 전 사업장이 주5일제 근무로 바뀌게 된다. 현재 제조업의 일주일 근무시간은 48간이다. 그러나 현재 법정 근무시간은 44시간이다. 내년 7월부터 법정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면 나머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된다. 물론 법에는 4시간 초과에는 25%를 더 주고 그 이상은 50%를 주도록 많은 완충장치를 두었지만 그래도 휴가일수는 139~144일 정도로 일본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법정 공휴일인 17일을 몇 일 정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어린이날이나 식목일을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옮기더라도 일본보다 더 많이 쉬어서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그 다음의 과제는 인력의 문제이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가운데서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가 넘을 경우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7%가 넘었다. 2019년에 14%가 넘을 예정이다. 2026년에 20%가 넘을 예정이다. 인구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노령화 대책, 출산장려 대책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불과 몇 년 사이에 정책을 이렇게 바꾸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다.

또 한가지의 인력문제는 기술인력에 관한 문제이다. 전·남북 대학도 마차가지로 대학간 연계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이공계 계열이 문제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공계대학을 서로 가려고 애를 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공계로 가지 않는다. 또 기능인력의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70만이 넘는 실업자가 있다. 그 중에서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실업자라고 하는데, 40만 명이 넘는다. 전체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것이다. 오늘 신문에는 30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산성의 문제, 인력의 문제, 중국 시장의 문제 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가야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결국 2만 불 소득시대로 가기 위한 여러가지 과제 중에서 오늘 아침 매일경제가 주관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특별 강사로 온 오마야 겐이치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노력을 좀더 하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재를 개발하고 인재를 활용하는 노력을 좀더 하라는 충고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을 하라는 말을 했다. 스칸디나비아식은 결국 핀란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로 기술개발을 통해 작고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2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현재 40년의 압축성장 속에서 CDMA 단말기나 LCD, 조선 등의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을 좀더 강화해서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人間)

## 신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참일꾼

경남 거제시 김한겸 시장

**태** 백의 정기가 남으로 뻗어 큰 바다에 솟아오른 거제는 700리 해안 곳곳이 백사장, 몽돌,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천태만상의 절경을 자랑하는 해양관광도시이다. 또한 천연의 항만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 굴지의 조선공단이 조성돼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아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민선3기 제5대 거제 시장에 취임한 김한겸 시장은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 건설을 슬로건으로 거제시의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 4선 의원 출신으로 전문 의정과 행정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시장은 거제를 신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거제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거제시가 겪었던 시련과 고통을 거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있는 김시장을 만나 관광도시 거제에 대한 소개와 지역발전 계획,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시장님은 도의회 4선 의원 출신으로 전문 의정과 행정통으로 인정받으며 거제시정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소감과 시정을 이끄시는 각오부터 말씀해 주시죠.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3기 제5대 거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경제를 튼튼히 다지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살기좋은 거제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야시다시피 거제는 섬 그 자체가 풍부한 자연공원이며,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도시입니다. 한려해상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해양레저 기능을 수행하는 21세기 신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거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역할과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보람과 희망을 갖게 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공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거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거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거가대교 조기 착공으로 인한 침매터널 제작장을 설치하고자 오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사업으로 이는 거가대교 건설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120억 원으로 준공한 거제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단위 우수처리장 시설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기반 확충으로 해양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 동백·조선테마공원 등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45억 원을 들여 진행 중에 있으며 고현~상동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하고, 이번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일운 와현마을 집단이주사업에 155억 원을 들여 해변 테마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습적인 태풍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거제시 또한 시장님께서도 ·농간, 농·어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화로 인한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개방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앞으로도 한·칠레무역협정 등의 개방은 날로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거제시는 우선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WTO체제의 극복과 새로운 농정수행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연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농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경쟁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출농업을 육성하여 외화 획득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 쌀 생산 조정제 사업에 18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대우·삼성 등과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기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료낙시터, 어촌체험 관광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어민소득을 높여 돌아오는 어촌으로 조성하고, 어촌개발사업과 바다정화사업을 통하여 수산기반시설 확충과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거제시도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정전상태 등의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재 복구상황은 어떻습니까. 또한 시장님께서도 일본의 선진재해예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셨는데요.**

태풍 '매미'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계와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택, 양식장 등에 많은 피해를 줌으로써 모두가 힘들었으나 시민들의 단합된 힘과 협동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저력 또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 피해는 사면이 바다인 거제의 특수성 때문에 강풍을 동반한 해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이재민 572세대에 재산피해가 2천 20억 원이나 됩니다.

거제시는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토목직 공무원을 위주로 한 "수해복구 설계지원반"을 구성해 171건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비 약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응급복구 사업에 15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항구적인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에 가장 피해가 많았던 일운면 와현마을의 집단이주사업에 155억 원을 들여 해변 테마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습적인 태풍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면서 해수욕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집단이주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풍 피해복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10월에 토목·건축 실무자와 함께 일본의 재해예방 시스템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해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호안도로의 경우 호안옹벽 시공 후 앞사석 또는 TPP 등으로 파도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어항이라 할지라도 연안의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수산생물의 서식 환경을 확보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 정말 많았고 그들의 확실하고 정확한 일 처리와 공사처리 방법 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들의 우수사례를 도입함으로써 태풍과 지진에 대비한 내풍, 내진 설계와 완벽한 시설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거제문화예술회관 전경



제10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



**시장님은 취임 후 '관광진흥협의회'를 발족하고 거제를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거제는 해금강과 외도해상농원을 비롯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천혜의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이 산재한 우리지역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여 3백만 명에 이르고 있고, 포포수용소 유적공원, 명승 2호 해금강, 외도해상농원을 비롯한 국내제일의 관광명소와 거제의 독특한 미를 살린 대표적인 명소인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어촌민속관 등이 최근에 개관함으로써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시는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홍보,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관광시설 등의 투자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지원을 위한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를 지난 5월에 구성하여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관광관련 현안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의·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은 현재 스쳐 가는 경유형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체류형 국제 관광지를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이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시설과 관광보조자원을 갖추기 위하여 대규모 관광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평 규모의 '장목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조성,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 동백테마공원 조성, 사등관광지 조성, 홍포 전망대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국내 최대의 해양축제인 "바다로 세계로"행사가 열리는 등 해양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타 지역축제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거제의 대표적 행사인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행사는 올해로 10회 째를 맞이했습니다.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는 사면이 바다인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스포츠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의 세계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국제 제트보트경기 등을 유치하여 남해안의 관광거점 도시인 거제를 해양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비수기인 2월 초순경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산되는 고로쇠약수제를 개최하여 농한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진달래 개화기인 3월말~4월 중순 사이에 우리지역의 명산인 대금산에서 매년 진달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경 총무공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첫 승전을 기리기 위하여 옥포대첩 기념제전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을 위하여 전 시민 및 재외향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 한마당 축제로 전 시민이 함께 즐기는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개장한 대규모 공연장이 갖춰진 문화예술회관을 모태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 및 제공으로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청정해역을 끼고 있는 거제에서는 다양한 농·수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특산물 자랑 좀 해 주시죠.**

거제의 해역은 미 FDA가 지정한 곳으로 감히 청정해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해역을 끼고 있는 지역의 특산물로는 생굴과 견내량·여치마을의 미역 등 여러 종류의 특산물이 있으나 그 중 대구가 으뜸으로 거제산 대구는 맛이 담백하여 고려 때 임금에게 진상되는 등 오랫동안 그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어획량이 줄기 시작하여 1981년부터 대구자원의 증강을 위해 매년 대구수정란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국내 처음으로 대구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거제맹종 죽순은 산과 물, 토양이 오염되지 않은 무공해 자연산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채취, 가공함으로써 싱싱한 맛을 내는 것이 자랑이며, 온난한 해양성 기후에 해풍의 영향을 받아 알이 충실하고 향기가 좋은 거제유자는 다른 지역 유자보다 맛과 향이 월등합니다. 약보다는 식품의 황색색소로 많이 사용되며 꽃향기가 뛰어난 거제 치자향수와 치자비누는 다른 상품과는 차별화 된 제품입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인간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거제시민자치대학」을 개최하여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평생교육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995년 3월부터 시작한 시민자치대학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그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한 강사 분을 초빙해 다양한 주제로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제시민자치대학」은 시민들로 하여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교육의 장이자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다가갈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 분을 초빙해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人間)

# 회원소식



■ **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은 11월 20일 복합 여가 문화 공간인 "스페이스 씨(SPACE\*C)"를 개관하였다. SPACE\*C건립은 World Best Coreana- Social Contribution(사회적 공헌)이라는 코리아나 기업정신의 발현으로 채택된 사업이다. 스페이스 씨는 미술품 전시, 무용, 영화, 연극 등을 실시하는 문화공간 뿐 아니라 각종 강의, 회합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상업적 공간을 겸비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으며 특히 화장품박물관에서는 유상옥 회장이 30년간 모아온 전통 여성 화장용구와 생활용구 등 소장품 4000여 점을 테마별로 전시하게 된다.

■ **삼립식품(사장 김영덕)**은 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 껌인 '체감'을 선보이고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로 알려진 '레반(Lavan)'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이 껌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과 공동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체지방 감소와 혈중지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태린 삼부해운 회장**은 11월 3일 단국대 난파기념음악관에서 열린 단국대 개교 56주년 기념식에서 한국해운산업 발전과 국제로타리를 통한 사회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단국대학교 이용우 총장으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김태린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회원들과의 기념촬영(왼쪽부터 김종엽사장, 마상곤회장, 김태린회장 부인, 김태린회장, 심갑보회장, 장만기회장)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국가 경제 성장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0월 31일 공주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한국블랜차드컨설팅(대표 조천제)**에서는 11월 27일(오후 3시~7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1월 29에는 서강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에서 "칭찬리더십" 특강을 하였으며 12월 4일~5일에는 "열정적인 조직만들기「경호」"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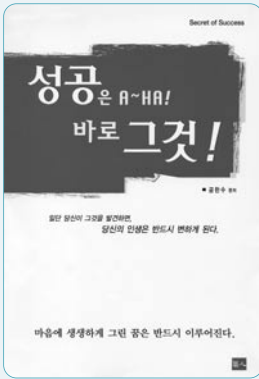
■ 최다학위 수료증 보유자 기네스인(94개) **이왕열(국제전략경영연구원 원장)** 경영/행정학 박사는 미국 링컨대(오�클랜드/1919년 설립) 객원교수(경영학, 마케팅)에 2005년 8월 30일까지 2년간 재임명 되었으며 또한 한국분교설립 추진위원장에도 유임되었다.

■ **제이에스엔지니어링 정창현 사장**은 지난 10월 16일 국제청에서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어 수상하였다.

■ **김종창 기업은행장은** 11월 19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 '제11회 고객만족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전사 고객만족경영부문 최우수상과 특별상으로 개인부문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였다.

■ **(주)성도GL/(주)솔루원 김상래 대표이사**는 지난 11월 12일 한국수업협회의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표창은 협회 창립33주년을 기념하여 주한 외국 대사 및 상무관, 각계 주요인사, 협회 임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있었고 "우수원자재 도입과 신기술 이전을 통한 국가산업 및 무역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수여하였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님**은 「성공은 A~HA! 바로 그것!」  
 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인간교육사업의 선구자, 폴 J. 마이어의 「That Something」 원문 내용과 함께 LMI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창형 삼표산업 고문**께서 11월 19일 별세하셨습니다.  
 박창형 고문은 본 연구원의 평생회원으로서 오랜 기간 연구원을 아껴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주 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414 미성APT 2동 203호  
 · 전 화 : 02-334-5550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김병수 지원실업(주) 회장**님의 차남 민섭군의 결혼식이 11월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윤형주 한빛기획(주) 대표이사/가수 회원**의 차녀 선영양의 결혼식이 11월 1일 온누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흥아기연	강대희 사장	(12월 1일)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	(12월 1일)
(주)아이티엔지	이동수 대표이사	(12월 4일)
동우화인캠(주)	한의섭 사장	(12월 7일)
(주)삼탄	강태환 사장	(12월 10일)
중원콘텍(주)	김만용 사장	(12월 10일)
대한해운(주)	이맹기 회장	(12월 12일)
신명인터내셔널(주)	최해규 회장	(12월 15일)
(주)성도GL	김상래 사장	(12월 17일)
원풍물산(주)	이원기 사장	(12월 20일)
KTF	남중수 사장	(12월 27일)
한일시멘트공업(주)	허정섭 회장	(12월 28일)

### 신규회원 소식

**남기열 우리증권 강북1본부장(개인회원)**  
 · 주 소 : 마포구 동교동 162-5  
 · 전 화 : 3143-6065  
 · 팩 스 : 322-8858  
 · 업 종 : 금융업



**최문수 BY성형외과 원장(개인회원)**  
 · 주 소 : 강남구 청담동 98-13 우경빌딩 5층  
 · 전 화 : 541-5522  
 · 팩 스 : 545-8743  
 · 업 종 : 병원  
 · 추천인 : 송언기 태창플랜트 사장



**한영호 진양공업(주) 대표이사(개인회원)**  
 · 주 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39  
 · 전 화 : 031-741-7741  
 · 팩 스 : 031-741-7749  
 · 업 종 : 제조/서비스업  
 · 추천인 : 박성훈 (주)모간 사장



**이윤복 금강기획 상무(개인회원)**  
 · 주 소 : 서초구 잠원동 27-8  
 · 전 화 : 02-513-1530  
 · 팩 스 : 548-0799  
 · 업 종 : 광고대행업  
 · 추천인 : 최규일 코너스톤바이저(주) 상무



### 회원가입안내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 5,000 (6인이상)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연구원소식



## ■ 차이나클럽 창립

회원여러분 및 감사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11월 25일 차이나클럽이 창립총회를 로얄호텔 에머랄드룸에서 가졌습니다. 중국 관련전문가들과 중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회원님들로 구성되어진 차이나클럽은 90여분의 발기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친목도모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학습해가는 모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조순 명예회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하여 흥인기 한국증권연구원 고문님과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님께서 각각 중국의 현주소에 대하여 간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창립총회를 스폰해주신 명동리뷰 심대섭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입문의 : 02-2203-7265 회원부)



11월 25일(화) 로얄호텔에서 45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차이나클럽창립총회가 있었다.

■ **본 연구원 장만기 회장**은 한남대학교(총장 신윤표)에서 선정하는 '2003 자랑스런 한남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달 13일 유성아드리아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본 연구원의 양병무 원장**은 지난달 3일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문제전문가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회원 한 분 추천하기 캠페인'

본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회원 한 분 추천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추천받으신 분께는 연구원의 안내자료와 강연테이프를 동봉하여 추천해주신 분의 성함을 기재한 정중한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회원부 TEL.02-2203-7265 FAX.02-2203-1974)

■ **회원친선의 날**행사로 11월 19일'한국고속철도 KTX시승식'이 100여분의 회원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광명역사 투어 및 설명회를 한 후 광명에서 천안아산역까지 왕복 40분이 소요되는 구간을 시승하였으며 시승식을 마친 후 오찬과 기념품수여 등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날 행사의 스폰서로 한국고속철도공단 정종환 이사장께서 오찬과 버스를 지원해주셨으며 (복)해동재단 인천실버타운의 장찬기 회장께서 추가로 버스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외 수고해주신 한국고속철도공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속철도 시승전 설명회



시승중인 본 연구원 회원들

## NBC(New Business Club) 발족회원 모집

"New Business Club(NBC)"은 디지털세대 경영자들에게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영창출과 新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이미 사업기반을 세우신 선배경영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하여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모임으로 발족하고자 합니다.

NBC는 디지털세대 경영자들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정기적인 포럼을 운영하고 비정기적 산업시찰, 야유회 등을 주요활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의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패기있는 기업인 및 임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준비모임은 12월 5일 예정이오며 발족식은 2004년 1월 중순 예정이오니 상세내용은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hdi.or.kr) 또는 소식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2203-7265 회원부 정성숙)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총무 태창플랜트 송언기 사장)** 196차 모임은 11월 24일에 이시원 사장의 부천산업 주식회사 공장에 있는 정원의 관상수를 관람하였습니다.

■ **이종기업동우회 2그룹(회장 세스코 전순표 회장/ 총무 동명인쇄(주) 우창욱 사장)** 다락회의 109회(12월) 모임은 부부동반으로 송년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사의 강연과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회원님 내외분의 귀중한 연말시간이 보람되도록 준비하였으니 많이 참석하시어 다락회의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 바라며 참석여부를 총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3년 12월10일(수) 오후7시
- 장 소 : 타워호텔 만복림 (02-2236-2121)
- 주 제 : 행복한 가정이야기 (연사 : 김용복 영동농장 회장)
- 참석통보 : 02-462-6323 / 011-222-6323 우창욱 (총무)

■ **이종기업동우회 제3그룹(회장 센부테크놀로지 윤화진 회장/총무 월간골프가이드 강민지 사장)**은 지난 11월 26일 '휴테크 성공학'의 저자 김정운 명지대 교수를 모시고 부지런하고 한가한 우리 생활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이란 주제로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 **인경회(회장 한국잡지협회 이심 회장/총무 삼보주단 윤건우 사장)**는 11월 월례정기모임을 11월 28일 한양C.C에서 가졌습니다. 인경회 12월 정기모임은 쉽니다.

■ **지중해클럽** 12월 제24차 모임은 송년모임으로 가질 예정이며 일자는 12월 17일(수) 오후 7시 예정이오니 미리 체크하시어 지중해 클럽 회원 여러분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다음 여행지를 정할예정입니다. 장소와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회원부 02-2203-7265)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기수별 야외 워크샵 진행

세상을 곁에 물들인 단풍의 계절을 맞이하여 11월 18~19일 1박2일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EPL36기 수료식 겸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또한 11월 7~8일 양평 십자수도원에서 진행된 EPL40기 워크샵에서는 교육생 모두가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꿈과 비전을 설정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명동지사 송년모임 개최

BIG DREAM & SUCCESS(대표 공한수)에서는 지난 11월 11일 민족문화연구원의 심백강 박사를 초청하여 '제1회 EPL수료자 모임'을 가진데 이어 아래와 같이 부부동반 송년모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LMI교육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3년 12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 장 소 : 삼성동 코엑스2층 비즈바즈(bizbaz)
- 문 의 : 774-3230

###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내용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 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임.  
기간 : 16주간, 주1회 일요일, 2시간
-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내용 :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임. ※ 석세스플래너 포함  
기간 : 9주간, 주1회 일요일, 3시간
-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내용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임.  
기간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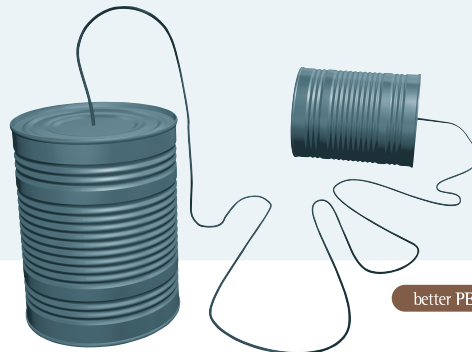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처

####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co.kr

####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 2202-8700 (F) 2203-1974 (H) www.lmikorea.com





# 연구원과 함께 한 29년

유신산업(주) 김동철 고문



이번 호부터 원로회원과 미니 인터뷰 지면을 마련하여 오랜 세월 동안 연구원과 함께 새벽을 깨워온 원로회원들의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신사라는 별명을 가진 김동철 고문은 평생회원으로서 29년 동안 경영자연구회와 함께 해오셨습니다. 1975년부터 시작된 연구원과 깊은 인연을 세 시간에 걸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어 연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논리 전개에 감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학습효과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편집자 주)

## 연구회는 언제부터 참석하셨는지요?

'75년 11월에 친구의 추천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죠. 그 때가 경영자연구회 10회였어요. 처음에는 매월 1회씩 개최하다가 1979년도부터 매주 목요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장만기 회장님이 개최하는 야간강좌에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에 신선한 충격을 받아 일 본어판 LMI 리더십 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 참석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강사님이나 강의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80년도에 서울대 윤석철 교수가 에베레스트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에베레스트산이 히말라야산 위에 솟아있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 전체 수준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죠. 이동원 前 외무부 장관이 미국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영국인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데 비해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에 문화를 전해주고 좋은 문화전통을 남겨 주었는데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비록 스케일은 크지만 사회전체의 스탠다드는 영국이 높기 때문에 영국인을 존중하는 것이고, 일본은 한국보다 스케일도 크고 스탠다드도 높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동경대 교수인 하야시 수지가 강의하면서 일본에서 먹는 회와 서울의 회 맛이 다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였지요.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들 때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들어 올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손으로 생선을 잡아 올리기 때문에 맛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 새벽 깨우기에 동참하시면서 경영이나 삶에 영향을 받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루는 기업의 주 업종은 화학이지요. 매주 다양한 주제를 듣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질 자체가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이 운이 좋으려면 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연구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운이 찾아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고 믿습니다.

## 회사는 언제 창업하셨는지요?

학교 졸업 후 6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70년도에 창업을 해서 '98년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회사경영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사장에게 사업이 어떠냐고 물으면 그 자체가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 회장님의 경영철학이나 좌우명을 소개 좀 해 주시죠?

저는 自重自愛란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계속성은 힘의 원천이라는 말도 좋아하죠. 자기 자신을 무겁게 하고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또한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지혜와 인맥이 생겨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기본이 바로 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道가 있으면 현명하게 행동하지만 道가 없으면 우매하게 행동하게 되지요. 기본은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小事가 大事이지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이광휘 수상이 치안, 사법, 교육, 보건, 노사, 운송 등 질서와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경제를 직접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는 경제란 통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만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경제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외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마루판 밑에는 마루가 끼이지 않도록 바쳐 주는 지주목이 있는데 인간 개발연구원은 바로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지주목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조찬학습문화의 원조로서 경영자들에게 경영과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人間)

# 생명산업시대를 맞으면서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

미래산업의 신화를 창조했던 정문술 창업자는 BT와 IT를 접목시켜 정보기술사회와 생명기술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300억 원의 사재를 쾌척하여 KAIST에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게 하고 이미 교육시설도 완공했다고 한다. IT산업과 함께 오는 BT기술산업이 가져다 줄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기대하는 정문술 미래산업 전 사장의 통찰력 깊은 미래관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종교문명의 발생지 옛 바빌로니아를 이어 받은 이라크가 미국과 저지른 전쟁의 결과 패전이 몰고 온 테러공포가 오늘의 지구사회에 확산되면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테러에 노출되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다. 과학자들이 밝힌 우주의 역사가 150억 년,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있는 태양계의 역사가 50억 년, 지구에 미생물의 생명이 탄생한 것이 35억 년 그리고 생명극치의 열매로 창조된 것이 인류의 생명역사이다. 우리가 누리고있는 인간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150억 년의 우주역사, 50억 년의 태양계 역사, 35억 년의 지구역사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철학은 "시간은 생명이다"라고 통찰케 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명은 참으로 신비하기도 하고 고귀한 것이다. "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성서적인 생명의 정의가 내려진 것이다.

시인 김지하씨를 비롯한 뜻있는 사람들이 생명문화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의미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무를 원료로 하여 생장 필수품을 만들어 성공한 유한킴벌리의 CEO 문국현 사장이 거액의 자

금을 투자하여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경제성장, 도시의 건설 등으로 인하여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는 자연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때 값진 생명을 보존하는 운동임을 절감케 된다.

생명이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해도 생명을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생명을 잃게 되면 생명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 신비에 가득찬 유기체인데 생명이 끊어지면 삼시간에 쉼어버리고 만다. 생명의 원천인 자연이 파괴될 때 그 자연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파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신비로운 체계를 연구하여 생명기술시대가 열리고 있다. 오늘의 세계경제를 전환시켜 놓고 있는 IT산업도 사실은 생명의 신비스러운 유기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한 끝에 발견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각광받고 있는 BT도 인간의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신비스러운 메커니즘과 그 역할을 통찰함으로써 시작된 기술이다.

인간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세포의 핵DNA의 정체가 밝혀지고 생명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되어 발표됨으로써 인류는 생명기술의 개가를 부르게 됐다. 우주가 창조된 이래 우주는 계속 팽창되고 있다고 한다. 제아무리 우주가 팽창된다해도 우주는 인간생명체내에 축소돼있다는 것이 미래를 이끌어갈 생명과학이 탐구해나가는 과제이다. "네 자신을 알라"라는 그리스 철인들의 인간탐지능력이 대단한 것이었음을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생명산업시대를 맞으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생명기술산업시대가 오면서 인간산업시대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신념으로 Better People Better World는 애독해주신 독자여러분께 2003년 송년인사를 드립니다.** (人間)

# 20년전의 약속

허영호 탐험가



**19**83년 히말라야 마카루 등정 후 여름날 나는 등반의 메카인 알프스로 향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처럼 산악인은 '꿈에도 소원은 알프스'였다. 특히 유럽 3대 북벽을 오르는 것이었는데, 나도 소원이었던 알프스 등반을 아이거 북벽, 마터호른 북벽, 그랑조라스 북벽 그리고 해발 4,807m의 몽블랑까지 등반했다.

그때는 결혼한지 얼마 안됐을 때였다. 몽블랑 정상에 섰을 때 문득 마음속으로 '내가 멋진 아들이 생기면 같이 정상에 와야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20년만에 다시 아들과 내가 정상에 섰으니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알프스 몽블랑은 유럽대륙 프랑스와 이태리의 국경에 솟아있다. 이 몽블랑을 처음 찾아온 이방인들은 1741년 두 명의 영국인으로 리차드 포코크와 윈드 햄이었다. 당시에 몽블랑 계곡은 인적이 드물었고, 위험한 계곡으로 알려져 있었다. 저주받은 계곡이라 불릴 정도로 원시림이 우거져 있었기에 정상으로의 도전은 그만큼 어려웠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후 1986년 미셸 가부리엘 파까드와 자크 발마가 몽블랑 정상을 향해 도전을 하게된다. 파까드는 자연과학을 좋아하면서 이 지역에 정착한 의사였다. 파까드와 발마는 그 해 8월 7일 샤모니를 출발하여 몽파뉴 드라코드에서 야영을 하고 다음날 새벽 4시에 등반을 시작하여 18시 23분에 마침내 신이 내린 이 산 정상에서 인간으로서 첫 번째 등정의 맛을 보게된다. 그후 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등반기술은 첨예 빙벽, 암벽등반으로 시작하여 히말라야 8,000m 이상 등을 도전, 등정하는 등반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등반의 메카인 샤모니를 나 또한 20년 전에 아들과 함께 정상에 오르겠다던 약속을 지키려고 2003년 7월 1일 보름간의 일정으로 왔다. 그러나 샤모니 계곡은 우릴 반기지 않는 듯 3일간이나 비가 와서 산을 오를 수가 없었다. 지금은 날씨가 나쁘기는 하지만 며칠 기다리면 날씨가 좋아질 것 같았기에 무리해서 오르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나는 판단했다.

4명이 출발한 우리 등반대는 7월 4일부터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플랑 케이블카 역에서 내린 뒤 빙하를 가로질러 보송빙하지대에 들어섰다. 여기서부터는 큰 크레파스 지대이다. 만년빙하이기 때문에 크램폰을 등산화에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빙하가 함몰되어 수십, 수백 미터 깊이의 낭떠러지가 생겨날지 모르는 위험지대이기에 각자 대원과 대원끼리 안전로프를 연결해야 한다.

샤모니에서 오후에 출발한 관계로 벌써 날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헤드램프를 착용하고 램프 불빛으로 야간 산행을 하여 없는 길이지만 희미한 발자국을 찾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던 최재명 선배가 "영호야 큰일났다. 빨리와봐!"하는 것이었다. 급히 가봤더니 크레파스가 2m 가까이 벌어져 있었다. 앞서간 희미한 발자국이 잇기는 한데 큰일은 큰일이다. 결정해야 한다. 빙벽을 올라 가야되나? 아니면 2m를 경중 뛰어 넘어야 되나? 한참을 왔다갔다하면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는 몸에 단단히 로프를 매고 "형 재석이 확보 확실하게 봐요."하고는 한 손에 아이스엑스, 다른 한 손엔 아이스바일을 꼭 움켜쥐고 두발자국 물러선 다음 캄캄한 어둠 속을 '하나, 둘, 셋' 도움닫기로 건너뛰었다. 다행히 무사히 건너왔다.

그런데 저 밑에는 재석이와 초보자도 있는데 어떻게 올라와서 건너 뛸 수 있을까? 하지만 한사람씩 로프를 매고 건너편에서 당겨주고 뛰고 해서 공포의 시간은 지나갔다. 모두가 무사히 건너 것이다. 우리는 밤늦게나 돼서 해발 3,057m에 위치한 그랑몰레 산장에 도착했다.

다음날 일출을 본다. 떠오르는 태양 속에 해발 3,842m의 에귀디미디암봉이 영화 속 마법의 성처럼 보인다. 태양이 떠오른 후 우리는 보송빙하지대 한 중간에서 헤매고 있었다. 고소적응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는 늦고 태양은 우리를 녹일 정도로 내려 쪼인다. 그리고 머리 위는 어마어마한 세락빙벽이 버티고 있었다. 저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시신도 못 찾을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대원에게 컵라면이라도 먹이려고 자리를 잡는다. 전후사정을 듣고는 최재명 선배를 비롯한 모두가 혼비백산하며 그 자리를 벗어난다.

무시무시한 빙탑을 빠져 나오는 데만 4시간 이상이 걸렸다. 이젠 안전지대이다. 그날 우리는 해발 3,817m 안전지대에 있는 구떼산장에 도착했고, 하루를 휴식한 후 7월 7일 최재명 선배, 사랑하는 아들 재석, 그리고 나 3명이 정상을 향해 새벽 3시에 구떼산장을 출발했다. 밖의 날씨는 영하 25도로 우모복을 입어야 되는 추운 날이다. 우리보다 앞서 출발했던 독일, 프랑스 등반대들의 헤드램프 불빛이 줄지어 가고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쫓아가려면 2시간 정도를 가야만 한다. 긴 설원을 오른 후 해발 4,362m의 발로산장 옆을 지나면서 급경사 설벽이 시작된다.

우리보다 먼저 올라간 산악인들이 하산을 한다. 너무도 부럽다. 우리는 아직도 한참은 더 올라 가야되는데, 나는 재석이와 몸에 로프를 맨 채 천천히, 천천히 쉬면서 저 멀리 붉게 떠오르는 일출의 힘을 받아 고소도 참으면서 고통스런 아들 재석이의 헉헉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면서 정상 '릿릿'에 섰다. "재석아 저기가 정상이다." 나는 천천히 재석이 뒤를 따라 정상에 섰다. 나는 재석이를 부둥켜 열싸 안았다. 갑자기 20년 전의 내가 생각난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구나. 너무나 기쁘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감격에 취하여 울어 버렸다.

내가 2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가족과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재석이와 정상에 섰으니까 이 기쁨을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 탐험과 등반을 했던 59살의 최재명 선배도 나와 같이 59년만에 처음으로 정상을 밟아보는 기쁨도 나누게 된다. 나는 정상을 떠나면서 돌아오는 겨울에 재석이와 둘이서 몽블랑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하산을 할 계획을 세웠다.

**"재석아 대명에서 열심히 연습하자!"**

언제나 자연 속에서 자유를 찾는 마음은 무한대인 것 같다. 人間



# 직장 三弊



李 圭 泰 조선일보 논설고문

우리 조직사회의 세 가지 통폐가운데 하나로 文山會海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고위행정직을 고루 거치고 사회과학원장을 역임한 왕휘가 근간에 지은 「중국관료천국」이라는 저서에서 쓴 말이다.

관료란 '알맹이 없는 서류의 산 속에서 놀고, 무의미한 회의의 바다 속에 잠겨있다'하여 文山會海인 것이다. 이는 중국의 관료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사회에도 고스란히 들어맞는 논리다. 뒷사람은 일의 양과는 아랑곳없이 부하를 늘리길 원하고 이 늘어난 부하를 위해 일부러 일을 만든다. 일을 만들다보니 알맹이 없는 서류만 늘어난 文山이 되고 시간을 죽이기 위한 會海를 이룬다.

그 한 사례를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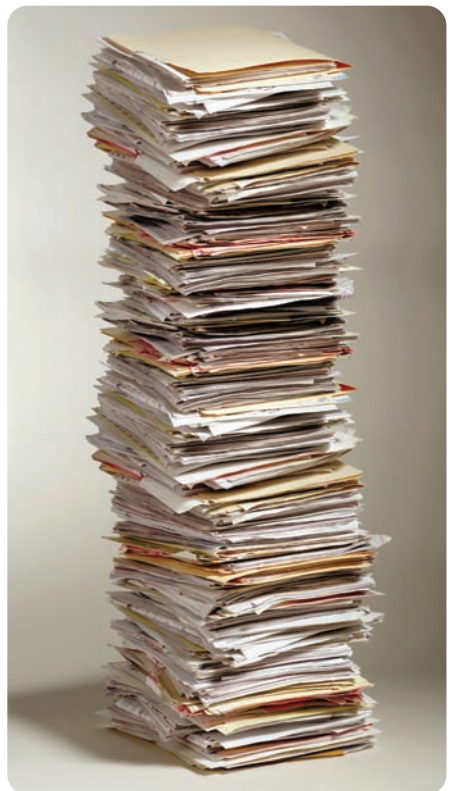
미국에서 아이 하나를 전학시키는데 필요한 서류는 성적증명서 한 통이면 된다. 사실 그 밖의 서류는 필요 없는 것이다.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학하는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호적초본이 필수가 되어있다. 재학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적이 나오며 주민등록 없이 어떻게 재학을 하며 호적 없이 어떻게 주민등록을 하겠는가. 역으로 말하면 성적증명 속에 재학증명, 주민등록증명, 호적증명이 다 돼있는데도 굳이 중복시켜 文山을 이룬다. 중소 기업하나 세우는데 서류를 120여 가지나 첨부해야한다는 文産 년센스가 진행되고 있는 작금인 것이다.

동서고금에 통하는 직장의 통폐가운데 다른 하나로 중국 육조 때 학자 안지추가 갈파한 上屈下慢을 들 수 있다. 뒷사람에게는 비굴하면서 아랫사람에게는 오만 불손하게 군다는 뜻이다.

경영학의 서비스 법칙에 '80대20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백화점의 하루 매상의 80%는 그 백화점 손님의 20%에 불과한 단골 우수고객이 올린다. 거꾸로 따지면 나머지 80%의 손님이 20%의 매상을 올린다는 것이 된다. 이 같은 현상을 80대20 법칙이라고 하는데 백화점에서는 소수이지만 많은 매상을 올리는 20%의 우수고객에게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사람 수는 많지만 이익을 적게 주는 다수의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등한시한다. 이것이 바로 소수고객에게 굶질거리고 다수고객을 업신여기는 上屈下慢이다.

80대20 법칙이 생겨난 것은 소수의 우수고객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니나 미래의 변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80%의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기업이 변창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법칙인 것이다. 곧 上慢 하라는 것은 아니나 下屈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자세임을 시사한 것이다.

나머지 3편 가운데 하나가 責昇過降이다. 책임이 돌아올 일은 위로 올리고 잘못으로 지탄받을 일은 아래로 내린다. 직장인은 책임과 과실에 무풍지대를 만들고 싶어한다. 미국 기업들에서 세 가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三不運動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말은 "I don't care", "That's not my job", "That's your problem"이다. 이 쓰지 못하게 한 말들 모두가 責昇過降의 통폐에서 탄생된 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人間



# 바퀴벌레 한마리가 내 가족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의 프렌치 키스



## 한 마리만 보여도! 세스코에 신고하세요

바퀴벌레와 개미는 100여종의 병균을 옮기는 위험한 해충입니다. 식중독, 알레르기, 천식, 피부병 ...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퀴벌레는 한 마리가 보이면 수천마리가 숨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충제로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스코에 신고하세요. 해충 전문가 세스코맨이 방문하여 바퀴, 개미, 쥐 등 해충의 서식처를 진단하고, 완전박멸해 드립니다.

초일류 건물부터 가정집까지, 이미 10만여 곳이 세스코존이 되었습니다. COEX, 인천국제공항, 63빌딩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건물도 세스코존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급호텔, 백화점, 병원, 대형빌딩, 식품공장, 음식점,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국내 100,000여 곳을 해충없는 청정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에서 박멸까지-  
**완전박멸 불가시 100% 환불 1588-1119**

전문가에 의한 해충박멸 서비스



# 클릭으로 열리는 전자금융세상! 생활에 여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공인인증

CMS

신용·직불  
카드VAN

금융공동망

전자화폐

금융ISAC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 주요업무

-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CD, 타행환, 전자금융, 주택청약)
- 전자화폐 ●전자상거래지급결제 ●신용·직불카드VAN ●CMS
-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 ●금융ISAC

